

박다원 / Now here (지금 여기)

안은영 (호주 미술 평론가)

박다원은 1957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작가는 매력적인 소녀 같은 미소를 지닌 체구가 작은 여성이다. 하지만 여성적인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작품은 흥미롭게도 남성적이다. "Now Here In Blue(지금 여기 푸른색으로)"와 "Now Here-Becoming(지금 여기-생성)" 시리즈 같은 최근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남성성은 자신감 있는 붓터치(필선)로 표현되는 대담함, 역동성, 활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려진 이미지와 여백, 그리고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사이의 세심하게 연출된 긴장감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남성성은 아마도 어린 시절 한국의 문인화를 접하며 형성된 그녀의 미학적 토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문인화는 전통적으로 조선 시대(1392-1910)의 남성들, 특히 사대부들에 의해 주로 향유되었다.

갤러리를 운영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박다원은 아주 어린 나이에 서병오(1862-1935)와 같은 조선 후기 저명한 문인화 거장들의 원작을 볼 수 있는 큰 행운을 누렸다. 대학 1학년 때는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있던 "세한도" 원작을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도 가졌다. 세한도는 조선 후기의 권세 있는 문신이자 영향력 있는 미술 평론가 및 감식가, 유명한 서예가였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저명한 문인화가였던 김정희(1786-1857)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이다.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 시절(1840-1848)에 이 작품을 그렸다. 의도적으로 간략하게 그려져 금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겨울 풍경은 작가의 고독한 내면과 그의 고결함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박다원의 "Now Here In Blue"와 "Now Here-Becoming" 시리즈는 현대적인 매체와 표현 방식에도 불구하고, 김정희로 대표되는 한국 문인화 전통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물론 고대 중국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행해진 서예와 수묵화의 현대적 타당성을 재발견한 현대 한국 작가가 박다원 한 사람만은 아니다. 한국 작가들뿐만 아니라 자오우키(1920-2013) 같은 아시아 작가들, 그리고 프랑스의 앙포르멜 화가 조르주 마티외(1921-2012)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클라인(1910-1962) 같은 서양 작가들 또한 자신의 감정, 내면세계, 심리 상태 및 영성을 표현하는 진정성 있는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서예와 수묵화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11세기 북송의 화가이자 서예가인 소식(蘇軾, 1036-1101)이 처음 정립한 동아시아 문인화 이론에 따르면, 개별 예술가의 독특한 붓놀림은 '기(氣)', 즉 자연의 정신이나 예술가 본인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마땅히 드러내야 한다.

박다원의 "Now Here In Blue"와 "Now Here-Becoming" 시리즈는 이러한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 시리즈의 각 작품은 작가의 다채로운 호흡, 리드미컬한 에너지의 흐름, 감정, 영적 강인함, 심리적 힘의 멈춰진 순간을 포착하며, 이는 관람자의 마음속에서 생기를 띠거나 재현되도록 의도되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박다원은 필요한 기술과 기법을 갈고닦았다. 즉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붓놀림은 사실 같은 선을 두 번 덧그리지 않고 신속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연습의 결과이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앞서 그녀는 명상을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창조할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된다. 이처럼 성실한 훈련 과정을 통해 그녀는 "Now Here In Blue"와 "Now Here-Becoming" 시리즈 안에서 통제와 자유, 혹은 역동성이라는 상반된 요소들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이룩해 냈다.